

아말렉과의 싸움(2)

¹²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¹³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¹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¹⁵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¹⁶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17:12-16)

질서의 처음 진리가 질서의 마지막 진리와 서로 상응할 때 처음 진리는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것들은 외적인 것과 결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상응을 통해 마지막의 것과 결합하는데 그때 처음 진리는 마지막 진리 안에서 힘을 가진다. 그 이유는 처음 것은 마지막의 것 안에 있고, 그러므로 마지막의 것을 통해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응이 없을 경우에는 분열이 있으며, 그러므로 처음 진리는 마지막 진리, 또는 궁극의 진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AC.8610)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8610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When the truth in the ultimate of order corresponds to this truth, then this truth is supported, because then they act as a one. For interior things are conjoined with exterior and finally with the last or ultimate by means of correspondences; then the truth which is first has strength in that which is last, because it is in this and acts by means of it. But if there is no correspondence, there is disjunction; consequent

출17:12-16

‘아말렉과의 싸움(2)’

ently the truth which is first has no strength in the last or ultimate.

이는 오늘 본문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에 관한 주석 중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聖) 문서(※ 주님이 스베덴보리를 통해 남기신 여러 저술들)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내적(內的, *interior*)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영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거짓된 영이 아니고요, 내적으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악이란 어떤 것입니까? 의도나 목적이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이라는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말렉은 신앙인들의 진리를 공격하지 않고 선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의 의지를 건드려 악하게 만드는 차원입니다. 아말렉이 이렇게 무서운 영(※ 즉 악인 줄 알면서 악을 행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평소에는 우리를 아말렉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시험 중에 아말렉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간의 싸움입니다. 이전 본문 끝 절인 11절입니다.

11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진리를 나타내고,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시험 가운데서 진리의 능력이 커지거나 약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아말렉을 이길 정도로 진리의 능력

이 커질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위를 올려다보며 살 때 진리의 능력이 커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천국의 비밀 8604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진리는 사람에게 있는 선 안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그때 사람은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과 결합한다. 그것이 주님을 향해 위를 올려다보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 위 8604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is Divine truth which is from the Lord flows into the good with man, and by means of it draws the man to itself; for the life which is from the Lord has a power of attracting, because it is from love, since all love has in it this power, inasmuch as it wills to be conjoined, so as to be a one. Then therefore a man is in good, and from good in truth, he is drawn by the Lord, and is conjoined with Him. This is meant by “looking upward to the Lord.”

이는 이전 본문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에 관한 주석 중 ‘모세가 손을 들면’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선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선이 있는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흘러들어오지 않고, 그러므로 그의 진리는 선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것 같은 진리이며, 생명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살아 있는 진리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주님을 향해 올려다보는 삶이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면에 선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진한 상

출17:12-16

‘아말렉과의 싸움(2)’

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선으로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내가 선하다든가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한은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진해야 합니다. 순진한 상태란, 선하고 진실한 것은 모두 주님께게서만 나오며,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과 거짓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 고백하되 입이 아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받을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해 위를 올려다보는 상태입니다. 12절입니다.

¹²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을 향해 올려다보는 힘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께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잠깐씩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모세의 팔이 피곤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진리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의 능력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온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진리란 선이 있는 진리, 즉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가 하나로 결합한 진리를 말합니다. 외적 진리는 그 자체로는 생명, 즉 선이 없는 진리이지만, 내적 진리는 선이 그 본질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가 하나로 결합할 때 진리 안에 선이 있게 되며, 그러므로 온전한 진리가 됩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진리가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며,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진리, 능력이 있는 진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과 훌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은 진

리가 일정한 질서를 이루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의 예를 들면, 껍질에 해당하는 진리가 있고요, 속살에 해당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씨앗에 해당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껍질에 해당하는 진리는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이를테면 말씀이나 말씀의 속 뜻처럼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거기에 내적 진리가 담기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의 속살입니다. 내적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의 천사들만 이해하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앗에 해당하는 진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진리란 그 모든 진리가 마치 한 개의 열매 안에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차원으로부터 가장 낮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된 진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까? 상응(相應, *correspondence*)을 통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새 교회분들은 상응이 무엇

인지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상응을 통해 낮은 차원의 진리가 높은 차원의 진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상응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은 하나님이 아닌 일체의 것들과 상응하겠죠. 즉 다른 신은 자기 자신이거나 물질, 돈일 수 있고, 세상 명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선과 진리, 그리고 그 능력이 오직 주님께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돈의 능력을 믿는 것도, 세상 명성의 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응의 의미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다시 말하면 나(我)나 다른 것을 일절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그때 가장 높은 진리와 가장 낮은 진리가 상응을 통해

출17:12-16

‘아말렉과의 싸움(2)’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 그 위에 모세를 앉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돌은 가장 낮은 차원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돌 위에 앉은 것은 가장 높은 진리와 가장 낮은 진리가 상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가 가장 높은 차원으로부터 가장 낮은 차원으로까지 상응으로 연결될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도록”은 하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끝나

서 새로운 상태가 시작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진리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¹⁴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온전한 진리입니다. 즉 가장 낮은 차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차원에 이르기까지 상응을 통해 단단하게 연결된 진리,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외적 진리와 내적 진리가 하나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응을 통해 이해한 진리를 삶으로 옮겨야,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진리를 실천하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실천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이성

과 의지 가운데 우리가 행한 진리를 새겨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람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직접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생명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영혼, 즉 이성과 의지입니다. 그것이 생명책입니다. 왜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행한 온전한 진리, 즉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선한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일종의 메모리 덩어리인 셈입니다. 살아생전 말하고 행한 모든 것, 심지어 속으로 생각한 것들까지, 모든 것이 영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후, 먼저 조사(調査) 천사들이 와서 사람의 영을 조사합니다.

주님은 또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일단 진리가 이성과 의지 가운데 기록되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악에 기울지 않고, 그 진리를 계속 따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근육과 신경이 그 운동의 동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옛날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면의 책에 우리가 행한 진리를 기록하시면 그것이 늘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관련해서는 더이상 악에 기울지 않고 계속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는 순종을 나타내고요,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싸우는 진리가 계속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

‘아말렉과의 싸움(2)’

한 진리가 사람의 영혼에 새겨지면 다시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늘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도전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단계적으로 섭리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시험에서 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용,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는 아말렉과 같은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15절입니다.

¹⁵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는 것은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깨지면 안 될 약속을 할 때, 흙을 높이 쌓는 것으로 약속의 징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자 할 때도 흙을 높이 싸놓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돌

을 쌓는다던가, 제단을 쌓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문명이 융성했던 지역에 가보면 벽돌이나 돌로 제단을 높이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 다시는 아말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닛시”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본래 “닛시”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 장수가 앞을 나설 때 깃발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깃발이 “닛시”입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산에 깃발을 높이 세우고 깃발 아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났으니 전쟁터에 나가자는 뜻이겠죠. 그런데 주님의 깃발 앞에 패배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닛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고 말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우리를 영

원히 보호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 역시 앞의 절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말렉으로부터 영원히 지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신앙인들의 선한 의지를 파괴하는 무서운 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말렉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가끔 아말렉의 시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들도 병을 치료할 때 독을 가지고 치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섭리에

도 그러한 섭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말렉의 시험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머리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절대로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를 철저히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면 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머리로 낮추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나를 높이는 마음이 없는가? 하고 자기 속을 항상 들여다봐야 합니다. 언제 나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교우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남에 있어서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래야 모세의 손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

출17:12-16

‘아말렉과의 싸움(2)’

니까?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온전한 진리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을 보면 어떤 분의 진리는 껍질만 있고 속은 텅텅 비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의 진리는 껍질은 부실한 데, 속살은 꽤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삶이 없는 것입니다. 행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만 있고 속은 없습니다. 후자는 경우는 말씀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체계적으로 잘 알지 못 한다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아는 만큼은 삶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세요. 진리의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삶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진리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진리는 모르지만 세상의 규범이라도 아는 만큼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절름발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새 교회에 들어왔는데, 왜 절름발이로 천국에 가야 합니까? 기왕

이면 진리에 따라 잘 살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지식도 있어야 하고, 삶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 안에 내적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진리는 주님께 의해 우리들의 이성과 의지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12:1)

아멘

원본

2016-08-28(D1)

청주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2-12-23(D6)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